



인터뷰 =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대표 ⑦

### 몽골 대표 셀렌게

## “불법체류자도 아프면 병원가게 해 주세요”

### ‘큰 딸을 한국에서 교육시켜 의사로 키우고 싶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5년간 근무하다가 2000년도에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와서 포천시 군내면 섬유공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셀렌게(33·사진)를 만났다.

셀렌게는 현재 소호음 송우리 시내에서 ‘바티칸’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는 60만원을 벌었는데 섬유공장에서 80만원을 벌었다. 금액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딸 둘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따라서 현재 큰 딸은 추산초등학교에 재학중이다. 2년 전에는 학교추천으로 큰 딸이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11살, 3살 딸의 어머니인 셀렌게는 8년째로 접어드는 한국생활이 좋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 음식점에 나오는

몽골인들 중에는 한국사람들이 너무 차별대우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는 포천나눔의 집에 전화하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셀렌게가 운영하고 있는 바티칸 식당에서는 주스와 몽골만두, 칼국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몽골의 고기만두는 한국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소고기와 양고기를 재료로 하여 고기만두를 만든다고 한다.

셀렌게의 고향인 울란바토르에서는 어머니와 오빠, 여동생, 남동생이 살고 있다. 한국생활중에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셀렌게는 ‘단속’이라고 한다. 다행히 셀렌게는 비자가 있다. 남편이 중고자동차를 몽골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몽골 사람들은 가족과 헤어져 사는 것을 싫어해 전 가족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몽골

에서 한국행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정부에서 몽골인들에게 비자를 많이 발급해 주어 부부들이 서로 떨어져 살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자녀교육도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현실향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한다.

셀렌게는 낮12시부터 밤12시까지 바티칸 식당을 운영한다. 가끔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온 몽골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병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병원에 가면 불법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간단한 약으로 처리하다가

큰 병을 얻는 경우도 있다.

셀렌게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이 포천에는 없다. 한국에서 큰 딸을 의사로 키우고 싶다는 셀렌게는 언마가 한국말을 잘해야 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셀렌게는 또 몽골사람들이 힘이 좋아서 일을 잘하지만 술을 먹고 숙제를 드러내어 속상할 때도 있다고 한다. 이점을 한국사람들이 이쁘게 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또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현재 포천에 100여 명의 몽골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50%는 불법이고 나머지는 비자가 있다.

이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 무성의한 포천시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



### 자유기고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 읍·면 남녀 노소 장애인들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에 모여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상호 소통하고 재활과 자립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으로써 가능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과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뜻하는 올바른 공동체사회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 행사에 우리 포천시 지체장애인들 120여명이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참가했다.

지체 부자유의 이유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간단한 외출도 마음먹은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이다 보니 집에만 있는 처지가 대부분으로 년중 몇

차례 앉히는 가대리는 행사이다. 많은 인과 코를 자극하는 음식냄새며 대대적인 잔치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우리 포천은 맞춤 도시락에 식여빠진 떡과 음료 등 옆자리의 출장부제와는 너무 비교되게 조리하다. 우리포천은 열악한 재정으로 이만한 준비에도 무리를 했는데 대체 어떻게...

다른 시군들은 자원봉사요원, 적십자봉사요원 등 인적지원에 전향, 식도구며 식탁과 의자에다가 관할 시청의 주선으로 차량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포천은 보조금 400만원이 고작이란다. 참가자 120명의 체육복 값도 충당이 안되는 금액으로는 늘 초라한 행사로 그칠 뿐 좋은 기분으로 왔다가 기죽어가는 꼴이다.

김성만 심미니회회 포천시지부 총무

## 포천동, 사랑의 쌀통 설치

### 긴급 생계곤란자 무료 사용토록

포천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왕근)에서는 관내 독거 노인, 아동위탁가정, 긴급 생계곤란자 등 관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4월2일부터 동사무소에 사랑의 쌀통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 쌀통은 관내 어려운 이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에 1회 쌀 1봉지(약 1kg)씩 가져가도록 하고있다.

쌀 한봉지는 한 사람이 하루 세 끼 식사를 할수 있는 양이며, 매일

사랑의 쌀통에 10개의 봉지에 쌀을 담아 두면 어려운 사람 누구나 가져가도록 하는 사랑의 나눔 운동이다.

포천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지진방지 행사시 수거한 쌀 90kg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소중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동사무소에 후원의 쌀통도 설치했다.

현재 하루 평균 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랑의 후원도 줄을 이어 6명이 200kg의 쌀을 후원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지속되면 어려운 주민이 점점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랑의 쌀 후원운동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랑의 후원은 성품(쌀)으로만 가능하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추천! 한마당 이야기

## 어느 할머니의 유언 시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

얼마전 북아일랜드의 한 정신의학 잡지에 실린 어느 할머니의 시를 소개합니다. 스코틀랜드 던디 근처 어느 양로원 병동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어느 할머니의 소지품 중 유품으로 단하나 남겨진 이 시가 양로원 간호원들에 의해 발견되어 알려지면서 간호원들의 가슴과 전 세계 노인들을 울린 감동적인 시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인 ‘괴팍한 할망구’는 바로 멀지 않은 미래의 우리 자신들 모습이 아닐런지요.

당신을 눈에는 누가 보이니요, 간호원 이야기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니... 저는 그치지 현혹하지도 않고... 성질머리도 괴팍하고... 눈초리마저도 호리랑명한 할망구 일테지요.

먹을 때 침침맞게 음식을 흘리기나 하고 당신들이 큰소리로 나에게 "항만 노릇이라도 해봐요!" 소리질러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노인네...

당신들의 보살핌에 감사 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저를 양말 한 짝과 신발 한 켤을 잃어버리지만 하는 답답한 노인네....

욕욕하러면 하고... 밥 먹으러면 먹고... 종단 싹뻗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릴없이 나뉘면 보내는 무능한 노인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 인가요. 그게 당신들 눈에 비쳐지는 '나' 인가요.

그렇다면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제발... 나를 한번만 제대로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여기 가만히 앉아서 분부대로 고분고분 음식을 씹어 넣기는 제가 과연 누구인가를 물어 줄게요.

저는 열 살 짜리 어린 소녀랍니다. 사랑스런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 언니, 동생들도 있지요.

저는 방년 열여섯의 처녀랍니다. 꽃에 날개를 달고 이제나 저제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발디디 꿀속을 날아다니는...

저는 스무살의 꽃다운 신부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새 스물 다섯이 되어 아이를 품에 안고 포근한 안락자와 보살핌을 주는 엄마가 되어있답니다.

어느새 서른이 되고 보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제 품에만 안겨있지 않습니다.

마흔 살이 되니 아이들이 다 자라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아이들의 그리움으로 눈물만 지새우지는 않는답니다.

원 샹이 되자 다스름 제 무릎 위에 아가들이 앉았어내요 사랑스런 손주들과 나...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암울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홀로 살아갈 미래가 두려움에 저를 떨게 하고 있네요.

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들이 없답니다. 젊은 시절 내 자식들에 퍼부었던 그 사랑을 뚜렷이 난 기억하지요.

어느새 노파가 되어버렸네요. 세월은 참으로 잔인하네요. 노인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몸은 쇠약해지고... 우아했던 기품과 정열은 저를 떠나버렸어요. 한때 힘차게 박동하던 내 심장 자리에 이젠 돌덩어리 자리 점유중이네요...

하지만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통이 안에 아직도 16세 처녀가 살고 있음...

그리고 이따금씩은 뜨거우든 제 심장기 콩콩대기도 한다는 것을...

젊은 날들의 기쁨을 기억해요. 젊은 날들의 아픔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젠 사랑도 싫도 다시 즐겨보고 싶어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오니... 너무나도 짧았고... 너무나도 빨리 가 버렸네요.

내가 꿈꾸며 맹세했던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진리를 이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모두들 눈을 크게 떠주세요. 그리고 날 바라 봐주세요.

제가 괴팍한 할망구요... 제발... 제대로 한번만 바라봐주세요. 나의 죄의식을 말해요...

(문의 011-342-5834)

## 시인의 창

### 틈

김선진(시인, 한국예총포천시지부사무차장)

갈라진 틈 사이에서 생명이 자란다 한 치의 양보도 없던 견고의 덩어리어

우리의 삶에도 더러는 틈을 허락할 일이다

세월이 허락한 균열의 틈은 세상을 향한 문이다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틈을 향해 일어선다

마음속 경계를 풀고 바람이 실어온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일이다

### <감상노트>

시인은 '틈'이 끈질긴 생명의 창(窓)임을 역설한다. 여기서 균열(crack)은 시·청각적 개념이며, 틈(gap)은 시·공간의 이미지적 현상이다. 꽃이나 촛불은 실을 찢고 태워 활기와 에너지를 분출한다. 그곳에는 틈이 생길 아무런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는 마음속의 틈은 병청과 열정, 오만과 편견이 만나는 회색적 통로이기를 희망하는

듯하다. 사람은 누구나 틈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은 사람이 결코 완벽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불완전함은 틈의 긴장감 속에서 현실적 산술을 주고 받으며 균형감각의 역학적 코스모스(cosmos)를 항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김선진 시인이 말하는 '틈의 미학'적 아이러니가 아닐까. 안익수(시인)

# 풍산 그라비아 포장지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POONGSAN GRAUVRE

##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 생 산 품 목

-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 뉴시용품 포장지류

### 가 공 제 품

- 스탠딩삼방, M자가공,
-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 용 도

-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조식식품
-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